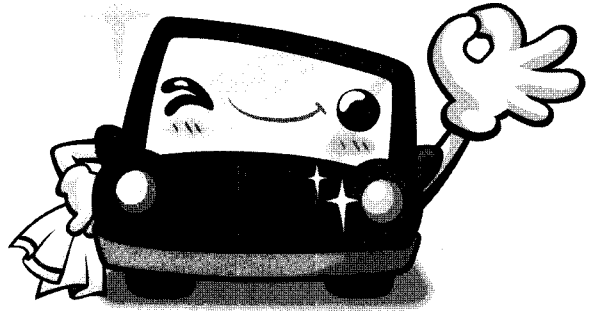


# 자동차, 외부 세차만큼 실내 청소도 깨끗하게~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가방은 손수건 위에〉의 작가 가와다 오사무(川田 修)는 “영업인의 가방 바닥은 신발 밑창과 같다”고 했다. 일본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영업사원인 그는 입사 5년 만에 영업직 최고 커리어인 ‘이그제큐티브 라이프플래너(Executive Lifeplanner)’로 승진한 비결이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노하우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고객 집을 방문했을 때 따로 준비한 하얀 손수건을 깔고 자기 가방을 올려놓는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가방 밑은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더러워진 가방을 깨끗한 카펫위에 올려놓기가 미안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작은 감동을 사기 위한 전술인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발 밑창은 깨끗할 리 없다. 저분한 길을 걸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진흙길이나 눈두렁을 걸기도하고 비린내 나는 어물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신발에 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TV같은데서 범죄 영화를 보면 범인의 신발에서 단서를 찾아내기도 한다. 범죄 현장의 증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신발을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탄다. 신발에 묻었던 온갖 것들이 매트에 그대로 남게 된다. 매트 바닥은 그야말로 각종 균들의 집합장소가 된다.

특히 겨울을 넘긴 차들은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담배냄새를 비롯한 갖가지 냄새들로 찼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냄새를 없앤다고 방향제를 놓지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차주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냄새를 맡으니까 못 느끼겠지만 가끔 친지나 친구가 동승할 경우는 불쾌한 냄새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깨끗한 자동차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관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은 내부관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처음 자동차를 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주었는가에 따라 그날의 기분도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차량내부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본다.

## ▣ 자동차 내부관리 요령

차량 내부를 청결하게 만드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트관리다. 최근에는 자동차 옵션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가죽시트를 순정으로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순정이 아니더라도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많이 교환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직시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죽시트가 보편화 되었다. 이렇듯 가죽시트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쾌적한 차량 내부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가죽시트의 관리방법은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 실내청소기나 셀프세차장에 구비되어 있는 진공청소기로 시트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트의 재봉선 사이사이 박혀있는 자잘한 이물질들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 물을 적신 걸레로 가죽시트 표면을 닦아 묽은 때를 벗겨 낸다. 국산차에 많이 적용되는 블랙컬러의 가죽시트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클리닝시 오염물질 침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염이 심각해서 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가죽시트 클리너를 이용, 솔로 가볍게 문지른 후 준비한 걸레로 닦아낸다.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가죽이 찢지 않을 만큼의 양만 분사하고, 재빨리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

▶ 클리닝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른타월로 가죽시트를 한 번 더 닦아서 남아 있을지 모르는 클리너를 제거한다. 클리너 제거 후 시중에 판매되

는 가죽보호제를 작업부위에 얇게 바르고 다시 깨끗한 타월로 문지른다. 이때 문지르는 정도에 따라서 광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만큼 문지르는 것이 좋다. 가죽보호제를 바를 때는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듯이 얇게 바르고 충분히 스며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차량에 적용되는 가죽시트는 몸이 닿는 부위는 천연 가죽을, 그렇지 않은 부위는 인조가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클리너나 보호제는 몸이 닿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트의 뒷면이나 측면과 같이 인조가죽이 적용된 부위에는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 플라스틱, 인조가죽, 천 등에 먼지나 손때가 묻은 경우에는 세탁용 합성세제의 3% 수용액을 거즈나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가볍게 닦은 다음 물에 적신 헝겊으로 잘 닦아 낸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한다.

▶ 바닥 보조매트 및 카펫에 먼지가 묻은 경우는 먼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 카펫 샴푸를 뿌리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카펫, 플라스틱, 인조가죽, 천 등에 기름이 묻었을 경우 거즈에 알코올을 약간 적셔 오염부를 가볍게 두드려 닦아낸다.

※ 주의사항 : 내장품을 세척할 때는 아세톤, 래커용제, 에나멜 및 표백제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액상 방향제를 실내에 사용 시 계기판 부위나 크래쉬패드 부위에는 절대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액상 방향제가 유출되어 계기판 부위, 크래쉬패드 및 공기 통풍구 등에 묻으면 액상

방향제 고유의 성분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 ▣ 쾌적한 차량 내부 유지

쾌적한 분위기로 차량 내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인 이 그 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차량내 금연 : 자동차 내부에서는 가능한 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냄새가 차량 내부에 스며들게 되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동차 내부 클리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내부 클리닝을 하면 항상 새 차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 건조된 차량매트 사용 : 건조되지 않는 차량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내 곰팡이를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세차 후 내부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를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해야 한다.

▶ 정기적 항균 필터 교환 : 자동차 회사에서 권장하는 교환주기는 통상 1만5천km이지만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지역이나 먼지가 많은 비포장도로 등을 장기간 운행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조기 교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항균필터 오염시 외부에서 오염된 공기가 운전자에게 유입되기 때문이다.

▶ 황사 철에는 외부 공기 차단 :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는 인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화산재는 황사와 조금 달라서 암석 조각이나 유리, 모래도 섞여있어서 사람이나 자동차에도 상당히 위험하다.

황사 철에 대비하는 차량관리 방법으로는 에어필터 관리가 중요하다. 자동차의 엔진은 공기 중의 산소를 흡입하여 엔진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는데 황사 철에는 공기 중에 모래와 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엔진 내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흡기구에 설치된 에어필터를 꼭 체크해야 한다. 기본적인 에어필터 교환주기는 5,000~7,000km마다 교환을 해주어야 하지만, 올해처럼 대기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교체시기를 조금 짧게 잡는 것이 좋다.

순정 에어필터가 장착된 차량은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순정 제품으로 간단히 교환하면 되고, 순정형 튜닝에어필터나 덮개가 제거된 오픈형 튜닝에어필터를 장착한 차량은 에어건이나 세척 오일로 세척을 하는 게 좋다.

황사가 많이 끼면 우선 물 뿌리고 닦으려고 하는데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황사에 모래와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마냥 문지르다보면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게 된다. 먼지가 많다고 먼지떨이개로 털어내는 것도 되도록 자제하는 게 차량을 아끼는 방법이다. 황사 철에는 세차장을 방문해서 물을 계속 뿌려 부드러운 솔로 먼지와 모래를 닦아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건조하고 먼지가 다시 표면에 닿기 전에 왁스칠을 해줘야 한다. 왁스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면에 이물질이 덜 붙게 된다. 이런 방법이 좀 번거롭더라도 하고 나면 미세먼지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 자동차 관리 용품

요즘 나오는 차량용품들은 차량 시트에서부터 히터 까지 여러 가지 냄새를 제거해주고 곰팡이 균도 신경을 써주는 제품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시트도 가죽시트나 인조가죽시트나 가리지 않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사용하고 나면 집에 있는 인조가죽이나 소가죽 같은 제품의 시트나 소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 차량용 실내 공기필터 : 차량용 실내 공기필터는 황사, 먼지, 배기가스 등 차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숲의 여러 장점들이 포함된 활성탄여지를 사용해서 방부효과와 숲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으로 인한 공기청정 효과와 습기를 흡수하는 습도조절 효과가 탁월한 공기필터도 출시되고 있다.

▷ 차량용 공기청정기 : 교통 체증과 각종 유해 물질, 오염된 공기로 차 안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 차량용 공기 청정기가 효과적이다.

샤프전자의 차량용 공기청정살균기(모델명: IG-BC2K-B)는 제품에 부착된 고농도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이 세균, 냄새, 곰팡이, 꽃가루 등 공기 중의 유해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한다. 또, 이 제품에는 샤프의 특허제품인 +, - 이온발생 유니트가 장착됐으며, 물 컵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작고 이동하기 간편하다.

웨이프로덕트 오토메이트(모델명: AS-1250)는 본체를 바로 시거 잭에 꽂아 쓰는 편리한 제품이다. 길이 115mm, 지름 25mm 정도로 손가락보다 조금 큰 정도라 좁은 자동차 안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음이온을 발생시켜 세균이나 담배냄

새, 자동차 매연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전원은 DC 12V를 사용한다.

▷ 카매트 : 오염된 매트 미세먼지나 세균은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열면 위로 올라와 사람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한다.

더원코리아의 '더원카매트'는 특수 EVA소재의 이중별집구조로 되어 있어 매트에 묻어 있는 흙, 먼지가 공기 중에 날리지 않고 매트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었다. 또, 항균 물질 박테사이드를 첨가해 살균 기능도 뛰어나고, 청소도 한 달에 한번쯤 꺼내 상판과 하판에 쌓인 이물질을 비워주기만 하면 돼 간편하다.

▷ 차량용 청소기 : 경민 메카트로닉스의 차량용 핸디 청소기 짜루(zaaloo)는 1회용 위생 먼지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2중 차단 장치, 돌출형 흡입구의 간편조절방식 등 다양한 실용적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또 청소공간에 따른 흡입력 2단 조절기능으로 전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첨단화된 '지능형 공기 정화 장치'

르노삼성자동차 'SM5' 가솔린 차량 중 LE 트림 이상 모델과 'SM7' LE 트림 이상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SPi(슈퍼청정기술)' 기능이 적용돼 있다. 두 종류의 전극 표면에서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방전시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없애는 기능이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에쿠스'와 '제네시스', '그랜저', 신형 '쏘나타'와 'K7', '모하비' 등에는 클러스터 이온라이저 기능이 장착돼 있다. 에어컨 및 히터 작동시 자동으로 음·양이온을 방출해 에어컨디셔너 냄새와 곰팡이 균을 없애며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K**